

네일폴리시 사용기한 표시에 대한 첫 논의 시작

- 미용업계·제조업체 간담회 개최,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합리적 표시 방안 모색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네일폴리시* 화장품의 합리적인 사용기한 표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* 손톱이나 발톱에 색상이나 광택을 더하기 위하여 바르는 손발톱용 화장품

이번 간담회는 오세희 국회의원,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, 대한네일 미용사회 등 미용업체 관계자와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.

최근 손·발톱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네일폴리시 제품의 소비 또한 늘고 있으나, 상대적으로 짧은 사용기한으로 인해 제품 폐기 및 재고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.

* 손발톱용 제품류 생산실적 : ('24) 약 529억 → ('25) 약 582억

이번 간담회에서는 네일폴리시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 폐기, 재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표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, 해외 규제 동향과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 될 예정이다.

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표시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간담회 개요

담당 부서	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연 (043-719-340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수 (043-719-3412)



□ 배 경

- 네일폴리시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짧아 제품 폐기 및 재고 관리의 부담 우려가 있어, 제품 특성 및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표시 개선방안 논의 필요

□ 개 요

- (일시) '26. 9. 18.(금), 10:00 ~ 11:00
- (장소)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 회의실(서울 영등포구)
- (참석자) ^{국회}오세희 의원, 전진숙 의원, ^{식약처}바이오생약국장,
^{협회}대한네일미용사회, ^{업계}네일미용 및 화장품제조업체 등
* (네일미용) 반디, 진비, 다이아미 등 3개사
(제조업체) 엔스, 아이즈미, 트리샤, 케이엠컴퍼니 등 4개사
- (논의사항) 네일폴리시 제품의 사용기한 표시 관련,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품 폐기 및 재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표시 개선방안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내 용
10:00	■ 개회선언
10:00~10:10	■ 개회사 및 축사
10:10~10:15	■ 사진촬영 및 자리정돈
10:15~11:00	■ 의견발표
11:00	■ 마무리 말씀